

無住宅

低所得層을 위한 住宅設計의 方向

李 珏 杓 / 주·엄&이건축연구소

— 잡상(雜想) —

● 1/5,000의 서울 지번도를 들여다 보면 마치 식물잎 뒷면에 식물 세포가 다다다다 붙어 있는 모양과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지번도에는 그 세포 하나하나로 들어가는 실같은 길이 있을 뿐이다.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집이 한채씩 들어 있다.

● 자하문밖 개울가로 소풍가서 물장구 치고 자두를 먹던 시절이 그리 오랜 옛일이 아니다. 그땐 물도 맑고 하늘도 파랗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시커먼 탁류에 공기조차도 맑지 않다. 서울에 있는 웬간한 산도, 강남의 넓은 들판도 집과 길이 들어찼다. 그렇게 해 왔어도 서울시민 절반이 내집이 없다.

● 서울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산마다 반짝거리는 것이 보석을 수북이 쌓아 놓은 것 같다. 그러나 그 반짝거리는 불빛 하나가 방이 하나이고 두 세개가 모여서 집 한채를 이룬다. 가뭄 때의 물통 행렬이나 눈만 왔다 하면 쌓이는 쓰레기더미 등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야경 속에 묻혀 있다.

● 고층아파트 숲에 들어 가면 인간 자신이 초라해 진다. 발코니를 유리로 막은 집, 안막은 집, 빨래를 널어 놓은 집, 안 그런 집, 이빨 빠진 괴물이다. 그 사이로 조그만 아이들이 놀고 있다. 마음의 여유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답답한 풍경이다.

● 연립주택 단지는 수많은 병정이 도열해서 있는 것 같다. 집 모양이 한결 같으니 내용도 같을 것이다. 방에 바른 도배지 색깔까지 같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도 똑같아 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 고속도로를 타고가다 보면 개량 주택단지가 몇년도에 시범개량 했다는 팻말과 함께 고속도로를 바라보고 죽 늘어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남쪽 향을 바라보게 해 놓으면 소리도 덜 들리고 좋을텐데 무엇이 더 중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차안에서

바라보는 집의 모양이 더 중요했을까?

— 아름다운집·편한집·싼집 —

● 음식은 음식마다 담는 그릇이 다르다. 맛 있게 보이려면 먹음직스럽게 담는 방법도 필요하다. 사이디나 콜라를 대접으로 마셔서는 그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릇이 예쁘면 음식맛이 더 난다. 마찬가지로 집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그릇이 아름다울 때 생활에 활력이 생기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생활양식이 틀리므로 집도 그에 맞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환경과도 맞아야 된다. 대폿집에서 서양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변과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아름답다고 볼 수 없다.

아름다운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산 속의 귀틀집이나 농촌의 웅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이 아름다와 보이나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집 저집을 세로 전전하며 고생을 하다가 자기 집을 마련해서 문패를 다는 사람은 그 집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 집이라는 애착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면서 집에 대한 결점이 나타나고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집에 대한 애착심을 잃어 버릴 때는 아름답게 느끼기는 커녕 다시 이사하고픈 생각이 날 것이다. 연애할 때에 상대자가 예쁘게 보여지나 사이가 나빠져 헤어질 때에 밋게 보이는 이치와 같다고 보면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아름다운 집은 전적으로 건축가의 디자인 능력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를 할 때에 창하나 가지고서도 씨름을 하게 마련이다.

건축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그 형태에 대한 인간의 시각적 느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 시각



적 느낌은 인간의 개성, 시대, 처해 있는 상태 등에 대하여 변수가 있게 마련이지만 결국은 미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 근교 북쪽에 서른 덧평쯤 되는 한옥을 가진 친척 형님 내외가 살고 있다. 널찍한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우물과 꽃밭·나무들이 짜임새 있게 놓여 있다. 여름철에 바지를 무릎까지 걸어 붙이고 옷통을 벗고 등떡을 한 다음 마루에 앉아 매미 소리 들으며 부채질을 하고 있노라면 정말 신선놀음이 다르게 아니다 싶다.

“이런 집에서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하고 형님내외에게 물었더니 “아! 좋지. 살기는 그만이야.” 하고 형님이 대답하는데 아주머니는 판판이다.

“말씀도 마세요. 이 집은 남자분들 좋으라고 지은 집이에요. 부엌도 틀렸고 겨울에 방마다 불뎀라 치려면...” 불평이 줄줄 나온다.

편하다는 개념이 바깥 주인과 주부와 상반되는 순간이다. 물론 바깥주인도 편하고 주부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가족이 다 스스로의 활동영역이 있게 마련이고 그 활동영역 중 집을 중심으로 한 영역이 있다고 보면 그 가족의 그 집에서의 활동하는 공간을 바탕으로 설계가 된다.

이때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게 된다. 먼 그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지만 건축가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마련이다.

기능이 과학적이고 편한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온돌방에 좌식생활을 오래 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서구식 생활이 편하다고 침대생활을 하시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일류호텔에서 편히 잠자고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세탁까지

도 호텔에 맡기는 생활을 오래 한다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서 며칠 묵다 보면 그 집이 아무리 편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편하고 안 편하고는 생활습관과 심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어서 건축가는 이런 점을 잘 파악하고 마음의 평정을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관적인 것 외에는 기능면으로 객관화 될 수 있는 것은 노



력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편함과 객관적인 편함을 얼마나 조화시켰는가에 따라 편한 집도 될 수 있고 불편한 집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어떻게 하면 싸게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다. 그때마다 당황스럽고 어물어물 해대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진다.

싼집... 싼집... 싼집... 어떤 게 싼집일까? 면적에 대한 공사비의 비율일런지는 몰라도 무척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나 자신도 내 집을 지으면서 내딤에는 싸게 짓는다고 이공리

저공리 다 해서 지어 보았는데 결국은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서 식구들에게 면목이 없던 터라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더욱 어렵다. 들어갈 돈이 무엇이냐고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하지만 들어갈 돈이란 집의 가치를 위해 필요한 돈인 것 같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크레용 사라고 주신 돈으로 차액을 남겨 군것질 하기 위해 싼 것으로 샀었는데, 칠할 때마다 부러지고 색도 잘 안나오는 조잡품이어서 어머니께서 새로 다시 사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비싼것이 싼것이다.”

집도 싼것에만 집착이 되어 설계나 시공을 하다보면 그런 조잡품이 생겨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와우아파트의 실례가 그렇고 그때에 같이 지었던 아파트들을 당국의 방침으로 헐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아파트들이 무척 비싼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저질의 집을 집단으로 짓다보면 얼마 안가 슬럼현상이 발생하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어느 대상에 대한 집을 설계할 때에는 질의 하한선을 정하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될 요소인 것이다.

그런 다음에 미관·기능 및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균형이 맞아 떨어질 때 그 집은 싼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집·편한 집·싼 집의 요소를 고루 갖추면 좋은 집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집에도 이러한 요소는 다 갖추어야 한다. 이 요소 중에 어느 것이 빠져 있다면 좀 늦더라도 기다려서 이 요소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주택 부족률에 따른 양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단순하게 거처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요소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생활환경이나 거주자의 개성은 무시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저소득층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 집이 없는 저소득층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양적인 공급정책은 문제가 있다.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제수준과 당국의 공급정책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야 한다. 새로 짓는 시영주택에 입주권을 주어도 실제로 입주를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 프리미엄이 붙어 다른 저소득층에게 돌아 간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건축행위(기획·설계·시공)에는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관련되어 있다. 이 건축행위 중 건축가와 밀접한 부분이 설계이다.

설계분야에 대해서 말한다면 집은 안식처이고 집에 들어와서는 마음의 평정과 내일에 대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갖게끔 해야 된다. 그러므로 현재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질의 하한선 위로 싸게 짓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답게 생활한다 하는 것이 극히 주관적인 개념이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느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수준은 장차 슬럼화 되지 말아야겠으며 과밀주거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

즉, 이것은 사람의 요구충족 수준에 대한 결정의 문제로서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이 요구충족수준은 변하기 마련이나 거주성을 높일 수 있

는 설계가 필요하다. 지어놓고 나서 어떠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점을 예측해야 된다. 그 예측이 빗나간다면 빗나간 만큼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가의 아주 중요한 일이며 그 판단에 의하여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건축가가 네모지게 설계하면 생활도 네모지고 세모지게 설계하면 그 안에서의 생활이 세모지게 되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획일화 작업,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형의 주거시스



템, 환경을 무시한 설계, 너무 기능에의 추구 등이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강요하며 무미건조한 생활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어떤 특장 건축주가 있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으며 정책 입안자가 건축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이나 주변환경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

또 몇평형이라는 고정개념을 만들어 놓고 이 평형수에 맞는 가정이 입주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획일화 시켜서 대량 생산하여 거기에 맞는 가정을 대량으로 모아 놓았을 때 환경이 비인간화되기 쉬운 것이다. 십몇층의 공중에서 마치 새집같은 생활을 하고 현관으로 나오면 계단의 반복, 밖으로 나와서는 인간을 위축시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외관의 반복이 생활의 여유를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획일성을 지양해서 다양화 해야 하며 표준화는 개별성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집의 크기는 인간적인 스케일 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생활할 사람의 개성을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된다.

또 경제적인 힘에 의한 수준의 결정은 최소한도 장차 슬럼화되지 않도록 좀더 높게 잡아야 될 것이다.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대지의 여유를 주고 가능하다면 증축의 소지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 같은 형의 대량생산은 적극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충족시키다 보면 양적인 공급문제에 차질이 오겠지만 이 양적인 공급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하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양적인 공급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점점 주변 환경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 양적인 부족을 해결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건축행위의 목적이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개체와 자연을 소중히 알고 거기에 역행되는 설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일수록 이 점은 더욱 더 중요하며 여기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설계한 집을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애착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된다.